

발레리 이고레비치 튜파 교수 초청 강연회:

서정시의 장르적 전략 (Жанровые стратегии лирики)

지난 6월 15일, 서울대학교 러시아연구소·러시아센터는 러시아학 연계전공과 공동 주최로 러시아연구소 자료실에서 러시아국립인문대학교 이론역사시학과 학과장이신 발레리 튜파(Тюпа Валерий Игоревич) 교수를 모시고 “서정시의 장르적 전략(Жанровые стратегии лирики)”이라는 주제로 초청강연회를 개최하였다. 튜파 교수는 장르 문제는 문학연구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여 지금까지 다양한 담론이 제기되어 왔는데, 이중 특히 서정시 장르는 비교적 명확한 정의와 설명이 존재하는 서사 장르와 드라마 장르에 비해 연구 상황이 훨씬 복잡하다고 문제제기하면서, 본 강연에서는 서사론, 의사소통(커뮤니케이션) 이론의 관점에서 서정시의 장르적 전략을 설명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에 의하면, 주체와 대상 사이의 구조적 관계(세계에 대한 서정적 관점의 가치적 구조, ценностная архитектоника лирического воззрения в мир), 주체와 수신인 사이의 구조적 관계(암시의 에토스, этос суггестивности)를 살펴보는 것은 서정시의 불변소들을 한정함으로써 위의 질문에 대답하는 것에 도움을 준다는 것이다.



강연자는 여러 수행적 기능들을 분류하고 이를 각각의 서정시 장르와 연관시켜 고찰하였다. 가장 먼저 고찰한 수행적 가치 체계인 “칭찬과 비방”은 가치적 구조에 있어 수직적 구조를 갖는데, 이 구조의 토대에는 세계수라는 고대의 원형이 있다. 마법적 주문은 칭찬의 말로써 칭찬의 대상을 범인들의 중간 세계로부터 고상한 존재들의 상층 세계로 떠받들고, 비방의 말로써 그 대상을 아래 세상의 지옥으로 떨어뜨린다. 서정시 장르 중 칭찬은 송시(ода)와, 비방은 풍자시(сатира)로 연결되고, 전자의 에토스가 영웅적이고 환희적이라면 후자의 에토스는 분노이다.

또 하나의 수행적 가치 체계는 ‘평안과 불안’으로, 이 둘은 규칙적이고 관례적인 특징을 지닌다. 반복적이고 익숙한 삶의 양식에 부합하는 것(자신의 것)은 긍정적, 우연적이고, 일상 양식의 안정성에서 벗어나는 것(타자의 것)은 부정적이다. 가치적 구조에 있어서 전자가 중심지향적이라면 후자는 중심이탈적이다. 전자는 전원시, 후자는 발라드 장르로 정의되고, 이 장르들은 수평적 가치 구조를 지닌다. 자신과 가까운 작은 세계, 즉 원 안의 세계와 자신으로부터 먼 낯선 세계, 즉 원 밖의 세계는 서로 대립된다. 전원시 장르가 집단적 동일성의 에토스를 갖는다면 발라드 장르는 희생의 비극적 에토스를 지닌다.

‘불평’을 수행적 기능으로 가지는 장르는 비가로, 이 장르이전의 장르들과 달리 공간적이 아닌 시간적인 가치 구조를 가지면서, 현재와 과거 사이의 긴장 사이에서 텍스트가 구축된다. 비가 장르는 회고적 성격 속에서 과거에 더 가치를 두고, 자기비하(케노시스)적인 에토스를 지닌다.



러시아연구소·러시아센터

Institute for Russian, East European & Eurasian Studies

РУССКИЙ ЦЕНТР ФОНДА РУССКИЙ МИР

낭만주의 시대에는 이전의 서정시에 부합하지 않는 많은 작품들이 나타났는데, 이들은 기원, 염원이 강화된 반-비가적 성격을 띠고, 현재는 과거가 아닌 염원하는 미래와 연결되는데, 이 장르는, 튜파 교수에 의하면, ‘볼룬타’(волюнта, ‘의사 표시’)를 의미하는 라틴어 ‘voluntas’에서 기원)로 명명될 수 있다. 이 장르에서 서정적 자아는 자기실현의 열망이라는 에토스 속에 존재한다.

포스트모더니즘의 서정시에서 또 하나의 새로운 수행 전략을 띠는 시들이 등장한다. 이 시들의 장르는 ‘에비덴찌야’(эвиденция, ‘명백한’, ‘뚜렷한’)을 의미하는 라틴어 ‘evidens’에서 기원)로 명명될 수 있는데, 이 장르의 가치 구조는 과거나 미래가 아니라 현재에 그 토대를 둔다. 이 장르의 에토스는 자기초월적인데, 왜냐하면 서정적 자아는 세계 속에서의 고유한 존재와 그 의미를 발견하기 위해, 실존적 진실을 발견하고 이해하기 위해 자신의 주관성의 경계를 이월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몇몇 불변소를 설정하고 이를 통해 러시아 서정시 해석의 새로운 실례를 제시하면서 튜파 교수는 2시간 반이 넘는 동안 청중들을 완전히 흡입시킬 정도의 열정으로 매우 새롭고도 흥미로운 시분석의 세계를 펼쳐주었다. 본 강연이 예상보다 훨씬 지연된 관계로 이어진 회식 시간에 진행된 질의 응답시간에서도 역시 튜파 교수는 특유의 열정과 박학파 유머로 참가한 동료연구자들과 대학원생들을 매료시키기에 충분한 논의를 펼쳤다.

